

비핵화



“비문학 공부의 핵심, 그림(畵)에 있다.”

개념편

<목차>

Chapter ZERO. 여는 이야기

Chapter 1. 평가원 전력 분석 & 행동강령 수립

: "또 그 패턴..평가원은 재탕을 좋아한다"

[STEP 1] 평가원 지문의 뼈대를 잡아보자 / "거시적 관점"

- Theme 1. "평가원 지문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나?"
- Theme 2. "평가원은 이런 정보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 Theme 3. 행동강령 수립 - "뼈대를 잡으면서 글을 읽는 방법."

[STEP 2] 평가원이 지문 뼈대에 살덩이를 붙이는 방법 / "미시적 관점"

- Theme 4. 평가원이 정보를 구체화하는 17개의 메커니즘 + 행동강령
- Theme 5.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특수 정보

[STEP 3] 실전 tip

- Theme 6. 시각적 모델링 (지문 위에 / 지문 옆에)
- Theme 7.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그런갑다."

Chapter 2. 총정리 및 예시 지문

- Theme 8. Chapter 1 총정리
- Theme 9. 예시 지문

Topic 02. 행동강령 로드맵 세우기

[0] intro

앞서,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덩어리 지으며 누적해, 마치 목차를 짜듯이 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글로 장황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를 짜듯이 글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트리스 게임을 떠올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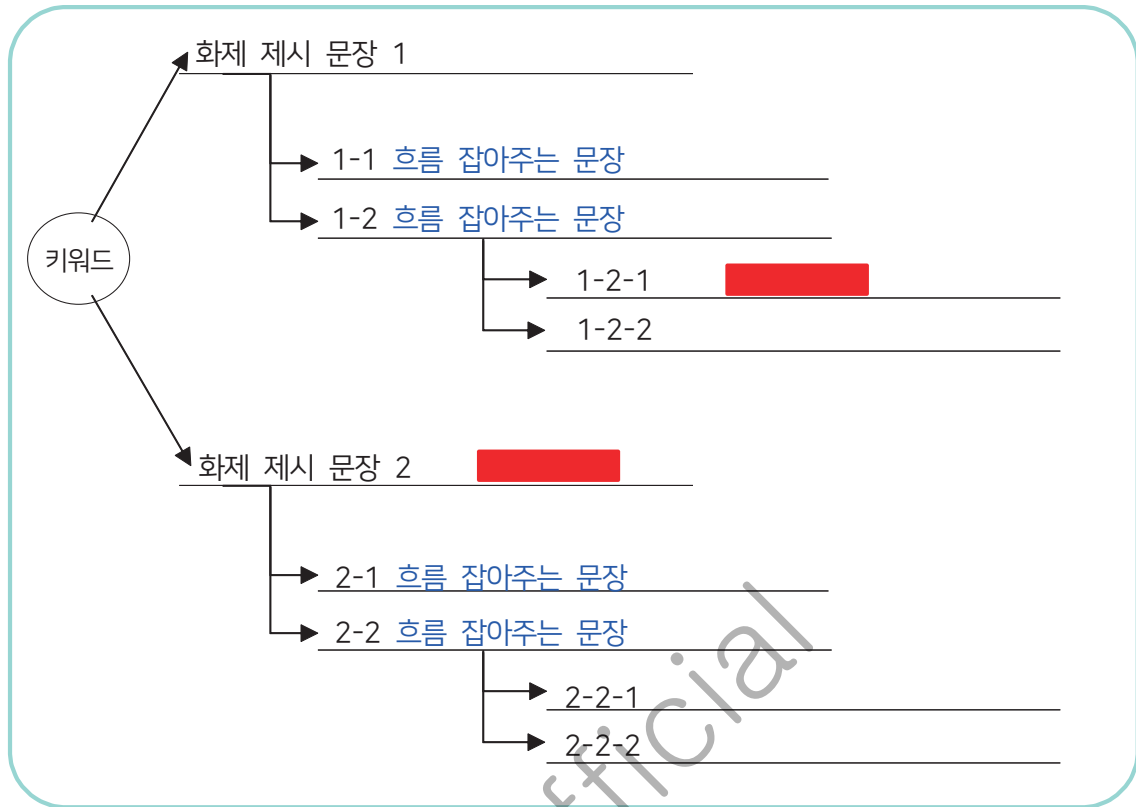
이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반부를 지나, 글의 중반부를 읽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의 사고를 잘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테트리스 게임은, 그때그때 랜덤으로 주어지는 블록을 이미 맞춰져 있는 블록들에 그 모양을 고려해 잘 끼워 맞춰야 하죠? 비문학 지문도 똑같습니다. 저렇게 랜덤으로 떨어지는 블록들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문단인 것이고, 먼저 떨어져서 맞춰났던 블록들이 이전에 누적된 지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 나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문단들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읽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떨어지는 블록들과 이미 쌓여있는 블록들이 맞물리는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쌓아버리면 결국 빠르게 GAME OVER 됩니다.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N번째 문단과 N+1, N+2 ... N+k 번째 문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쌓으면 결국 수능에서 GAME OVER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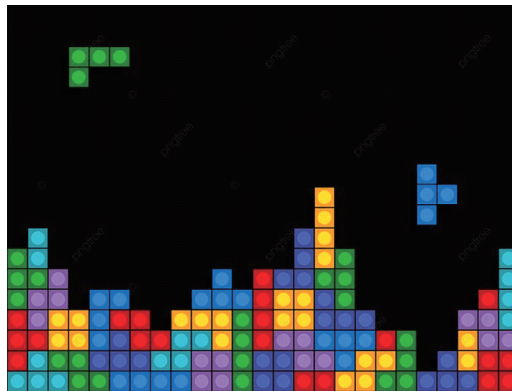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문단들을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이전 문단들이 쌓여온 형태를 고려해' 쌓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따지면서 가지치기 하듯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머릿속에 목차를 그리듯이'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



그리고, 이를 앞서 설명했던 이미지에 적용하면 위와 같이 된다. 결국 위 이미지와 같이 상-하 범주를 고려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Topic 04. 로드맵을 기반으로 행동강령 수립**” 이 되는 것이다.

[한 문단 내에서는,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고 연결한다 :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기]
앞서 이런 테트리스 게임을 언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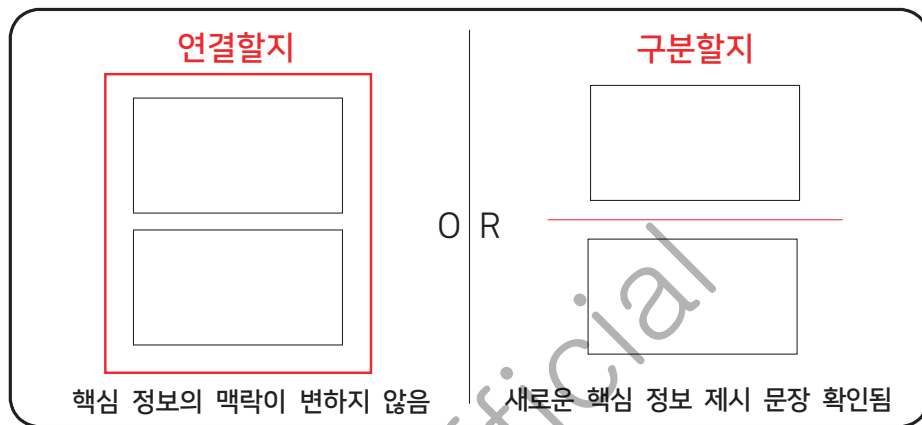


앞에서는 이 블록 하나하나를 문단에 비유했었는데, 한 문단 내에서 해야 할 생각을 묘사할 때는 저 블록 하나하나가 문장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된다. 문장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앞 문장과 연결되서 재진술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이면 하나로 모으고, 구분되는 내용이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붙이며 체계적으로 문장을 누적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고 연결하며 그 문단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범주에 따라 체계를 만들며 조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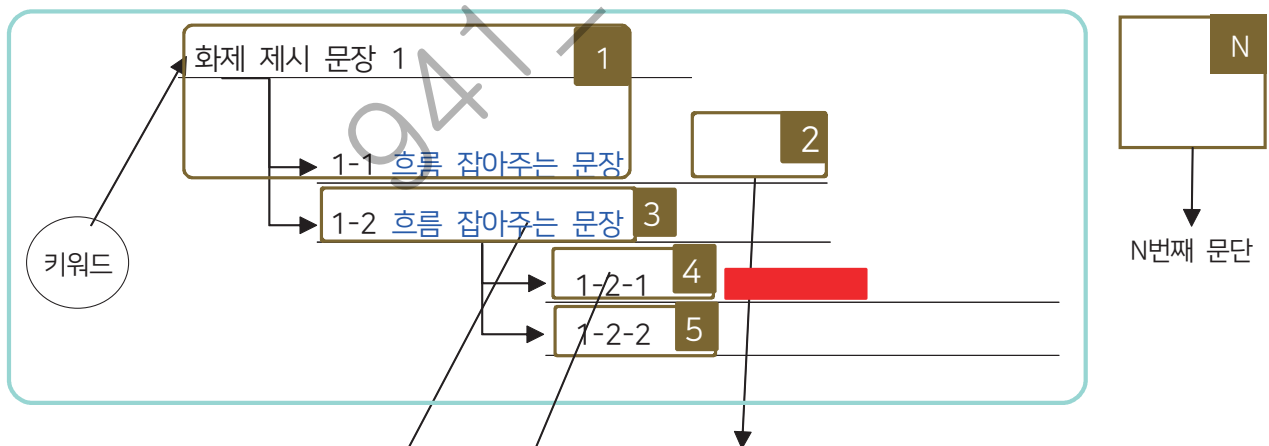
[항상 전체에 대한 생각을 곁들이며: 문단과 문단을 구분&연결]

핵심 정보 제시 문장이 나온 후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앞에 문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행동을 한 문단이 끝나고 새로운 문단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문단의 초반부 내용을 보면서 항상 해줘야 한다.**

먼저, 이전에 진행되던 핵심 정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문 초반부에 잡은 키워드에 대한 화제가 유지되는지 바뀌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이다.



⇒ **안 바뀌면** 이전 핵심 정보에 소속시키고, 그 안에서 이전 문단과의 관계를 통해 **“이 핵심 정보 내에서 지금 내가 읽은 문단이 어떤 위치인지”** 잡는다. 다시 말해, **그 핵심 정보 내에서 이 새로운 정보가**



‘이전 정보와 연결되어 구체화되는 정보인지 (1문단의 범주 하에서 정보 구체화)

이전 정보에 소속된 하위 범주인지, (3문단의 범주 내에서 세부적으로 4와 5로 쪼개짐)

아니면 이전 정보와 구분되는 다른 범주인지 (예를 들어 앞의 예시 지문에서 실외 ->실내로 바뀌는 부분) 파악하는 것이다.

⇒ **바뀌면** 새로운 핵심 정보의 화제 제시 문장을 잡고 이에 입각해 아래 나오는 내용을 붙이면 된다.

그리고, 이전 문단과의 관계를 통해 “이 핵심 정보 내에서 지금 내가 읽은 문단이 어떤 위치인지” 잡는다는 말은 아래와 같다. 문단과 문단을 관계지으며 정보를 누적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이렇게 해줘야 한다.

시간	지문	확보한 정보
t1	J1 1	J1
t2	J2 2	J1 + J2
t3	J3 3	J1 + J2 + J3
t4	J4 4	J1 + J2 + J3 + J4
t5	J5 5	J1 + J2 + J3 + J4 + J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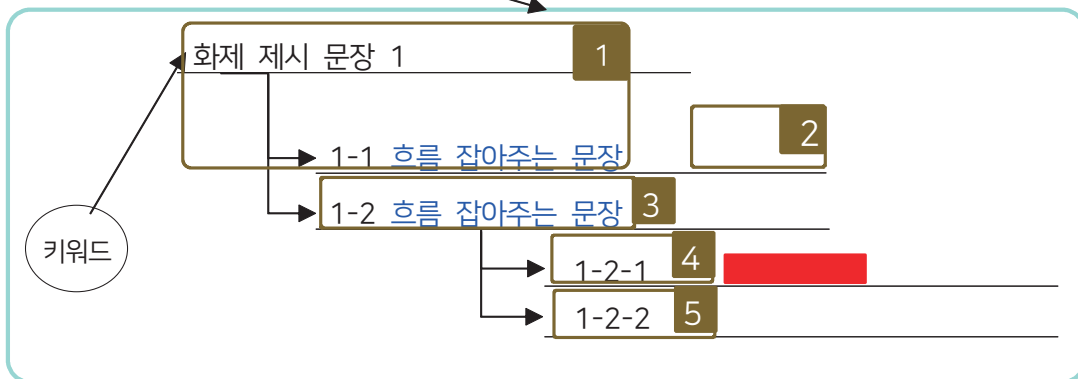
한마디로,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문단은 이전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핵심 정보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각 문단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보면 절대 안된다. **윗 문단에서 확보한 정보를 끌고 내려와서 다음 문단에서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위와 같은 양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누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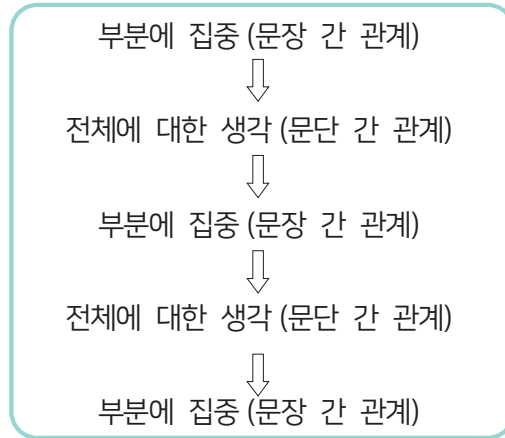
1문단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통해 J1을 도출하고, 2문단에서는 J2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J1에서 필요한 정보를 끌고 와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J2를 도출하고, J1과 J2를 활용해 3문단을 읽으며 J3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구체화 된다.

- 1) 다음 문단에 들어가서 초반부 정보를 통해 이전 문단들과 핵심 정보를 같이 하는가 아니면 바뀌는가 체크
- 2) 핵심 정보를 같이 한다면, 이전 문단에서 나온 정보들 중 끌고 내려와서 구체화하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며 이 페이지에서 소개한 그림과 같이 정보를 차곡차곡 쌓기 ->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 핵심 정보에 내에서 정보의 목차가 잡히며 머릿속에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이는 예시 지문을 통해 연습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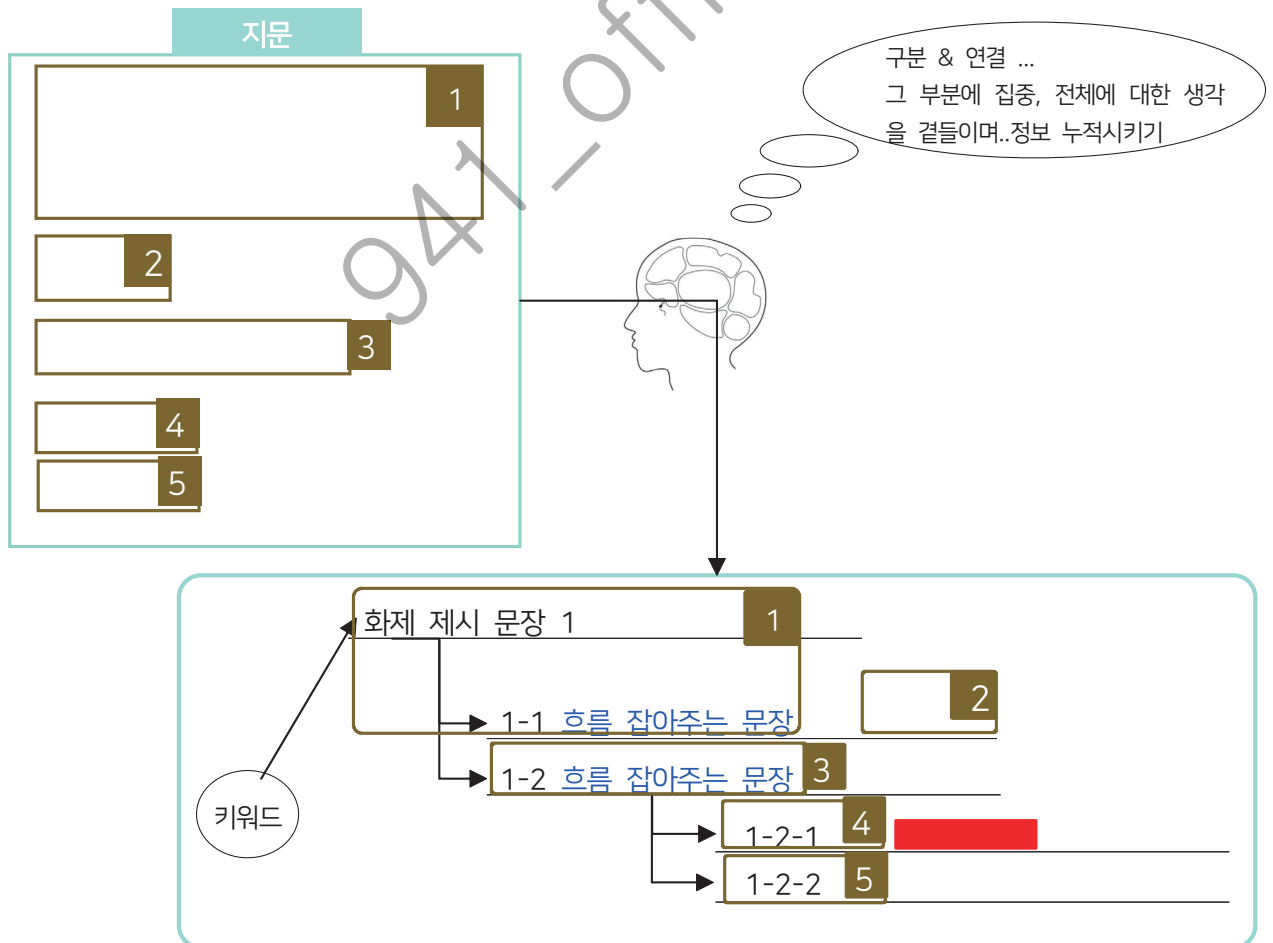


■ 결론



쉽게 말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부분에 집중하되,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항상 곁들이며”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언급되는 ‘전체에 대한 생각’은 곧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파악하며 지문의 목차를 짜듯이 글을 읽는 것과 같은 말이다.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고 연결하며 각 문단의 정보를 잘 조직화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 문단을 다 읽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마자 그 문단의 초반부 정보를 보고 핵심 정보 같은지, 앞 문단 정보 끌고 내려오는지 판단하며 지문 전체에서 이 문단이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자. 이게 전부다. 왜 지문의 목차를 만들면서 읽기 위해 이런 행동강령이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이 잘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럼, 이제 STEP 2로 넘어가 보자.



■ THEME 4 intro

“정보의 구체적인 서술에 활용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화제 제시 문장과 그 밑에 흐름을 잡아주는 문장을 활용하면 지문의 구조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두 가지 문장에 N개의 문장들로 살덩이를 붙여야 내용이 완성된다. 여기서는 평가원이 지문 뼈대에 살덩이를 붙이는 메커니즘을 모두 나열할 것이다. 평가원 지문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들여다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평가원 기출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이렇게 모두 나열하는 이유는 여기서 언급되는 기법이 항상 재탕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글을 읽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독해 방법에서 더 나아가 출제 포인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출제된다. 여기서 나열된 17가지 생각을 잘했나 못했나 출제 의도인 것이다.

■ THEME 4 CONTENTS

PART A | 용어의 개념·정의

[생각 1] 개념·정의 : 박스치고 완전 이해

PART B | 문장을 연결하는 접착제 “순접”, 그리고 문장을 구분하는 “역접”

[생각 2] 순접 : 연결의 단서 #재진술과 구체화

[생각 3] 인과 (원인-결과, 요소 간 관계, 조건, 근거)

[생각 4] 역접 : 구분의 단서

[생각 5] 예시의 활용 : 일반적인 설명에 붙이기

PART C | 목차 생성 도구, 지문의 뼈대에 대한 생각

[생각 6] 하위 범주로 쪼개기 : 쪼개고 각각을 구체화한다. (그런데 이제 공통서술범주에 입각한 비교·대조를 곁들인)

[생각 7] 통시적 흐름 : < > (변화되는 것과 유지되는 것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생각 8] 나열 : 넘버링

[생각 9] 원칙-예외 / 일반-특수 : 짝지어서 구분

PART D | 그 외 연결과 구분에 대한 생각

[생각 10] 요소 간 관계 : 공식

[생각 11] 수식어구의 중요성 : 괄호 쳐서 수식 대상에 붙이기 (그런데 이제 문장 읽는 방법을 곁들인)

[생각 12] 순서·과정 : 넘버링

PART E | 그때그때 마주치면 해야 하는 생각

[생각 13] 포함 관계 vs 부속품 관계

[생각 14] 추상적 / 주관적 범주 : ? ⇒ !

[생각 15] 반댓값 추론 / 정보 생략 :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생각 16] 극단적 범주 : 동그라미

[생각 17] A가 아니다. B다 : O X